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29.(목)

□ 경남 기사

-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민주화 추모공간 폄하 (국제신문)
 - 金 “도시 분위기 어둡게하는 시설” / 기념단체·야권, 사과·사퇴 촉구
- 합천군청 압수수색...직원들 '당혹' (경남일보)
 - 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관련 / 파장 어디로 미칠지 수사 방향 촉각

홍 보 담 당 관 실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008면

사회

창원 무인점포만 골라

현금 훔친 20대 붙잡혀

창원에서 무인점포만 골라 절도를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ㄱ(29)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44분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절단기와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부숴다. 이어 지폐교환기에 들어 있던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범행 10분 전 돈을 훔치려고 들어간 여좌동 소재 무인 분식집에서 자동결제기를 열지 못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ㄱ 씨는 사람이 많지 않은 진해 구시가지 일대 점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사이 두 차례 도난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28일 0시 50분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ㄱ 씨를 검거했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희비 마련을 하고자 점포를 털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최석환 기자 csh@

< 형사과 통보 >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민주화 추모공간 폄하

金 “도시 분위기 어둡게하는 시설”
기념단체·야권, 사과·사퇴 촉구

김미나(비례·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민주화운동 추모공간을 ‘도시 분위기를 무겁고 어두워지게 하는 시설’로 깎아내려(국제신문 지난 27일 온라인보도) 지역 민주단체와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유족을 상대로 ‘시체 팔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샀다.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는 2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부동산 투자자를 대변해 하루아



침에 민주 성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사진)를 열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김 의원은 민주 성지 마산·창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원 개인의 발언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진환 부마민

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그동안 민주시 민항쟁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온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며 “김 의원은 민주영령의 유족과 창원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3·15의거기념사업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 계승경남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가 연대활동을 벌이는 건 처음이다.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품은 공간에 대해 부동산 투자자 시각을 빌려 대변할 수 있느냐”며 “너는 창원시를 더럽히지 말고 물

러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마산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추모의 공간이 있다”며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발언했다. 김용구 기자

< 정보과 통보 >

합천군청 압수수색...직원들 '당혹'

**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관련
서울 사무실 등 총 11곳 전격 압색
파장 어디로 미칠지 수사 방향 촉각**

속보=경남경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일보 28일자 4면 보도)

특히 이번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께 합천군청 3층에 위치한 관광진흥과를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관련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해 가져갔다.

또 시행사 대표 A씨 양산사무실, 공범 B씨의 서울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이 합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단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호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A씨와 공무원 간의 유착과 특혜 등 추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 A씨 횡령 사건과 관련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거쳐 압수수색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호탄으로 알려지자 합천군 공무원들은 향후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호텔 조성사업 관계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합천군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합천군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체가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야 있겠느냐”면서도 “직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 같느냐”고 기자에게 묻기도 했다.

주민 B씨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나와 실망스럽다”며 “호텔 사업에 연루된 사람의 잘못을 따져 직위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날 오전 경남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 최종보고회의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으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었다. 김상홍기자

< 광수대 통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8일 오후 5시 경남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 영양교사 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울동을 함께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영양교사에 안전보호 책임 전가 말라”

전교조 경남지부 영양교사 대회
경남교육청 산업안전 연수 규탄

경남교육청이 영양교사·영양사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연수를 진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5시 경남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경남 영양교사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5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13일 자 8면 보도

경남지부는 “지난 5월 12일 경남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 실무역량 및

인식향상 연수’를 갑작스럽게 안내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안전보호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자인 학교장 교육을 등한시한 채 그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약 1000개 학교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남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지원청에는 업무 담당자가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비효율적이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인력, 예산, 권한, 책임 등을 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경남지역 영양교사·영양사 대부분이 교육청이 마련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합연수에 참석하지 않자 박종훈 교육감은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 역할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연수인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동욱 기자 ldo32@

< 정보과 통보 >

“밀양 S파크리조트 이용 불편 여전”

회원들 시정 앞 항의 재집회
“문제 시정하기는커녕 제명”
운영사 “계약규정 따른 조치”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내 S파크리조트 회원들이 지난 8일에 이어 28일 밀양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 9일 자 6면 보도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선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적게는 1억 80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모두 472명(472계좌)이 1000억 원이 넘게 청약계약을 했으나, 리조트는 세워지지 않았고 골프장은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S파크리조트회원협의체 소속 회원들은 지난 8일 집회 당시 △현재 472개에 이르는 계좌를 250개로 줄여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률을 높일 것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비해 골프장과 리조트 지분권을 부여할 것 △사태가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 농어촌관

광단지조성사업단이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S파크리조트 운영사인 SC홀딩스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회원협의체 대표 2명을 제명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다른 회원들에게 제명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사태 책임은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추진해온 밀양시에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민관공동사업의 목적에 맞게 밀양시가 이익관계 규정을 수정하고 골프장과 리조트 지분을 확보해 이 사업을 완전한 민간 영역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파크리조트 운영사인 SC홀딩스 관계자는 “회원협의체 대표자 제명 조치는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자 지위 상실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골프장 이용자의 97% 이상이 계약자들일 만큼 이용상 어려움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 정보과 통보 >

창녕 열병합발전소 재심의 '부결'

계획위 결정...군 수용 전망
반대 주민들 일제히 "환영"

창녕군 대합면 열병합발전소 개발 행위 심의 결과 결국 부결됐다.

이를 심의한 창녕군계획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창녕군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창녕군은 위원회 판단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계획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창녕군청에서 이를 심의했다. 부결 결정 사유는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공무원 5명,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간 확인을 거쳐 공개된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기업인 '에퀴스' 자회사인 이비이창녕(유)이 지난 1월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 외 2필지에 '고형연료처리(SRF) 열병합 발전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열병합발전소 설치 절차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계획위원회는 지난 심의 때 제시했던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 등 주민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등 8가지 보완 조건에 대해 이날 집중분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 조건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오염물질(다이옥신 등)의 발생량·제거율·축적량 등 수치화 자료를 제출할 것 △외부에서 대량의 폐기



창녕군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창녕군청 앞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군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이일균 기자

물 유입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합면민 등 창녕군민들과 인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주민들로 구성된 창녕군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겨레하나,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심의가 시작된 이날 오후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300여 명의 참석자는 "발전소 부지 2km 내에 1600여 명의 대합면민이 살고 있다", "3km 지점에 우포늪이 있다. 청정 창녕을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반대한다"면서 창녕군계획위의 부결 결정을 요구했다.

창녕군청 앞 한쪽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별도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참석 인원은 20여 명이었다. /이일균 기자 iglee@

< 정보과 통보 >

케이베리, 대표 ‘법카’ 부당 사용 의혹에 내부 자정능력도 의심

“사적 용도 활용” 내부고발 나와
지출결의서도 허위 작성 논란
이사·감사 일부 선임 요건 미달
카드 유용 사실 알고도 모른 체

소속 법인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특정 항공사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으로 물의(부산일보 6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를 빚고 있는 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K-BERRY)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터져나온 데다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감사마저 자격미달 지적이 나온다.

케이베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열린 케이베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회원들은 대표 A 씨에게 법인카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케이베리 사무실. 잇따른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케이베리에서 최근 대표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도 불거졌다.

유용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원래 케이베리 대표에게 주어지는 ‘법카’는 관련 업무를 위한 추진비 용도로 사용된다. A 씨 역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는 사용 용도가 업무 관련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지출결의서의 진위 여부다. <부산일보> 취재 종합 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공동물류체계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회원사 대표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법카를 사용했지만 당사자들

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8월 10일에는 공동물류체계 도입사업과 관련해 케이베리 직원, 항공사 직원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에는 공동물류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출결의서를 올렸지만 참석자가 조작됐다.

이 밖에 공동물류 관련 논의를 한다며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해당 자리에는 공동물류를 신지 못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법카 유용 의심 횟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A 씨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3~4건 정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표가 쓴 건데 어떡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베리 소속의 한 법인 관계자는 “본

인이 일부 시인을 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함부로 법카를 쓰나. 게다가 케이베리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로 운영되는 곳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인 이사·감사들은 A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일부 직원들이 이사·감사에게 보고했고, 지난 3월에는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 5월 운영위원회 이후 한 달 뒤에야 뒤늦게 감사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사·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케이베리는 대표이사 1명과 생산자 이사 5명, 수출사 이사 1명, 감사 2명

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민 출신으로,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사 1명과 감사 1명은 당초 케이베리 가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지침상 케이베리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농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지정 받은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가진 법인농단이나 농협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있는 법인은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자 케이베리는 가입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6월 운영위원회에선 준회원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미승인 농단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탄성 쏟아진 하루, 함께 뛰니 진짜 이웃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4회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체육대회’가 28일 문산면에 위치한 진주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남일보가 주최하고 진주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진주시, 진주시체육회가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공공기관과 진주시,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가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는 단일 종목 ‘축구’로만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면서 멋진 경기를 선보였다.

경기를 따라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가운데 처음엔 합이 맞지 않다가 경기 후반이 갈수록 호흡이 맞으면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 코너킥에서 멋진 발리 슈트를 날리기도 하며, 빈공간으로 정확히 공을 찰러주고 그것을 받은 스트라이커가 그대로 골로 연결하기도 했다. 프로 경기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프리킥의 골도 보이면서 관중석의 환호를 받

제4회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체육대회

남동발전, KTL 등 8개팀 참가 열띤 경쟁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꺾고 우승 차지



28일 오전 진주시 문산면 소재 진주스포츠파크에서 제4회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체육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왼쪽)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오른쪽)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정용교기자

았다. 1대1 찬스를 아깝게 놓치며 관중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아쉽다는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격수의 중거리슈트를 멋지게 쳐내는 골키퍼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불 병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심해져 과열되는 듯했지만, 심

판의 적절한 중재와 넘어진 선수를 상대선수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격려하기도 하며 상대 관중석으로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훈훈함을 주는 경기가 됐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남동발전 직원은 “혁신도시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지만, 함께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 대회가 열려 정말 좋다”며 “경남일보가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내년에도 열릴 것 기대한다”고 했다.

남성민 진주시축구협회 회장은 “화합을 목적으로 대회에 참여해서 인지 과열되지 않게 경기에 임한 모습이었다. 그 결과 큰 부상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

했다. 이어 “대회 참가자들이 수준 높은 경기와 멋진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폐회식 없이 대회를 진행했으며, 대회 중간 고영진 회장을 비롯한 경남일보 임원진이 경기장을 찾아 참가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영진 회장은 “공공기관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진주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우승은 진주경찰서가 진주소방서를 1-0으로 꺾고 차지했다. 정용교기자



조근제 군수,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조근제 함안군수는 28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병철 부군수와 강옥순 보건소장이 함께했다.

조 군수는 “마약 투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서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慶南日報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010면 경제



박기수 금연지원센터장, 마약근절 캠페인

경상국립대는 경남금연지원센터 박기수 센터장이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기수 센터장은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치사율 높은 자전거사고 대책 필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사고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3450건이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3529명이 다쳤다. 2018년 646건, 2019년 751건, 2020년 682건, 2021년 689건, 2022년 682건 등 총 345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시 단위는 창원(809건), 김해(586건), 진주(302건) 순이고, 군 단위는 거창(104건), 창녕(92건), 함안(86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에 버금갈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조금만 주의하면 줄일 수 있는데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봄과 여름 등 야외 활동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에다 교차로나 역주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적인 안전장구나 안전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진주 사봉면에서는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버스와 충돌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후사경이 없다보니 마주 오는 차량은 스스로 피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역주행 하다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를 운행하거나 교차로 일단 정지 무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곡예주행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 이동수단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이롭다.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자전거보험까지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고 있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사고예방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과속·곡예운행을 삼가는 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자전거도로망 정비와 함께 사고예방에 적극 임해 주기 바란다.

취재수첩

한화와 청소노동자



최 석 환

시민사회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부당 해고된 청소노동자 양지수 씨가 한 달 전 원직 복직 투쟁 중단을 결정했다.

2020년 12월부터 복직을 요구하며 사측과 맞선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은 양 씨 등 6명에 대한 경찰 고소건을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출하식장을 찾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며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을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과와 금전 보상도 했지만 고소는 별개라고 여기는 것일까.

그동안 양 씨에게 합의를 독촉했던 사측은 유독 고소건을 두고서는 비타협적이다. 미신고 집회를 벌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긴 시

간 이어진 다툼을 봉합하기로 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양 씨의 이전 직장 관계자는 28일 오전 “고소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내부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합의로 다툼을 봉합하되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논리일까.

양 씨는 2017년 12월부터 3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면서 폭언과 감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고됐다. 이런 앞뒤 사정을 고려하면 사측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외로운 싸움을 벌인 양 씨와 그를 도운 이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생각할수록 저열하다.

이대로 고소가 진행되면 양 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양 씨는 오직 복직만 바라보고 고된 싸움을 이어오다 가까스로 보상까지 끌어냈다. 그런 노력이 자칫 빔바렐 듯해 안타깝다.

사측은 양 씨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분쟁을 멈추는 게 합의다.

오늘의 날씨

밤부터 빗줄기 강해져요

29일 부산 울산 경남은 비가 오겠고 밤에는 시간당 30~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6월 29일 (음 5월 12 일) 기상안전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30	30	50	60	2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음/달짐
05:12	19:42	15:19	01:26

물때	일몰	일출
부산	04:17 17:18	10:14 23:21
인천	00:32 12:49	06:46 19:15
포항	02:18 11:46	05:43 19:09
통영	04:42 17:55	10:55 23:55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남해서부	남-남서	8-12	1~2
남해동부	남-남서	4-9	0.5~1.5
동해남부	남-남서	6-11	0.5~1.5
동해중부	남-남서	5-9	0.5~1
서해중부	남동-남	5-13	0.5~2.5
서해남부	남-남서	8-12	1~2

주간날씨	30(金)	1(土)	2(日)
부산	23-26	22-27	22-28
울산	24-27	22-28	22-30
진주	23-27	21-30	21-31
김해	23-27	23-30	22-30
창원	23-27	22-29	22-29
통영	22-25	21-27	21-27
대구	24-30	23-32	23-33
세종	23-27	22-32	23-33
서울	22-29	23-32	23-30
제주	25-28	23-28	23-28